

사진전 개요

- 전시제목 : (한글)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
(영문) Chris Jordan : Intolerable Beauty
 - 일 시 : 2021. 6. 3 ~ 7. 11(개막식 6.3, 전시 6.4~7.11)
 - 장 소 : 전주 팔복예술공장 전관(이팝나무홀 및 본관 2층 전시관)
 - 전시작품 : 사진, 영상 등 총 63여 점
 - 전시주최 : 전북환경운동연합·팔복예술공장
 - 전시주관 : 플랫폼C
 - 전시 후원 : 전라북도 교육청·전주시·전라북도
 - 교육협찬 : 한국환경공단전북본부·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해설 : 평일 오후 2시, 주말 오후 2시· 4시
 - 입 장 료 : 무료(단체관람은 사전 예약만 가능)
 - 관람유형 : ● 단체 자유 관람 _ 예약/화·수·목·금/오전 10시·11시·오후 2시·3시·4시. 50명 이내 신청 가능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입장 인원 제한
 - 대기 학생은 팔복예술공장 야호 놀이터와 도서관 이용 가능
 - 도슨트 해설 관람과 자원순환 환경교육 _ 예약/화·수·목·금/오전 10시·11시·오후 2시·3시·4시. 중 오전 1회, 오후 1회 진행 / 50명 이내 신청 가능 (80~90분 소요)
 - 해양 플라스틱 오염 사례 파악 및 쓰레기 줄이기 학습(초등)
 - 생활 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 자원 재활용 및 감량 필요성(중등)
 - 환경교육용 사진전 팸플렛 구입 권장 5,000원(환경기금)
 - 프로그램 : ● 예술공장 초록강좌 4강 (환경, 예술 명사 4인 강연과 관람)
 - 장미정의 “환경 이야기 & 그린 스케치스” 3강
 -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전시 기간 상시·예약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5월17일 전북환경연합 홈페이지 접수 오픈(선호 일자 3순위 게재)
 - 오시는길 : 팔복예술공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문 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www.jeonbuk.kfem.or.kr
 - 담당 : 이정현 선임활동가(010-3689-4342), 문지현 부장(010-9192-1029)
- 팔복예술공장 063-211-0288 www.palbokart.kr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진전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개최

- 오는 6월3일부터 팔복예술공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다뤄
- 사진, 영상, 설치 작품 63여점·대표작 <알바트로스 Albatross> 특별 상영
- 자원순환 환경교육, 예술공장 초록강좌, 환경과 예술 심포지움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진행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 전시회를 개최한다.
 - 크리스 조던은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100여 회 이상 전시를 할 정도로 환경예술사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로, 플라스틱 소비와 쓰레기의 문제를 세계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담아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의 공통 과제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사진, 영상 및 설치 작품 총 63여 점과 함께 작가의 대표작인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 Albatross>가 특별 상영된다. 장르를 넘나드는 크리스 조던의 다양한 작품은 현대세계의 주요 담론과 이슈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현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보이지 않았던 플라스틱 오염의 현실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백옥선 팔복예술공장 대표는 “바다 위 플라스틱 쓰레기로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와 생활속 쓰레기로 재구성한 사진작품이 주는 울림이 매우 크다” 면서 “예술과 환경의 상호적 메시지 제시를 통해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 전시회가 열리는 팔복예술공장은 25년간 방치된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문화와 예술교육, 창작 공간으로 재생한 곳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1호 ‘꿈꾸는 예술터’로 지정 받았다. 팔복동 아이들과 노동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놀이를 통한 예술 경험, 예술교육, 상설 기획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부장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공간에서 열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야외 및 체험학습 기회가 크게 줄어든 학생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관람 시간, 입장료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jeonbuk.kfem.or.kr) 또는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www.palbokar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첨부 : 1. 전시 개요 1부 2. 작가 소개 3. 포스터(안) 끝.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 사진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대량소비사회, 환경문제를 다루는 작품활동

- 우연히 쓰레기 더미 사진 속에서 모순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숫자로 본 미국인의 자화상>, <태평양 쓰레기섬 자이어 II> 등 현대 대량소비 사회의 이면을 드러내는 사진작업 진행
- 태평양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죽은 새의 사진들을 처음 소개하여 전 세계가 태평양 쓰레기 섬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계기 마련
- 태평양 미드웨이섬 촬영 중 만난 어린 알바트로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8년간 플라스틱 폐기물로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 촬영



1963 미국 시애틀 출생

1981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학교, 텍사스 오스틴대학교에서 미국문학 전공

1991 텍사스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 취득

1992-2002 시애틀에서 10여 년간 변호사 활동하며 사진 작업

2003~ 생업을 접고 전직 예술가의 길로 돌입, 태평양 <미드웨이> 시리즈 작업

<전시 경력>

201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문명-지금우리가사는방법> 외 다수

200텍사스 아말리로 미술관, 호주 멜버른, 밀라노 등 미국과 전 세계의 미술관, 화랑, 문화기관에서 100여 회가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

<출판물>

『전달 수 없는 아름다움』 『숫자로 본 미국인의 자화상』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자리』 『우시리키아노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수상경력>

‘시에라클럽 안셀 애덤스 상’(2010) ‘UN 그린리프상’(2007) ‘픽셋 심사 대상’(2011) 외
‘2018 런던국제보건영화제’대상(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

<작품소장처>

게티 뮤지엄, LA현대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등 다수

[붙임 2] 포스터(안)

